

숀 펜, 젤렌스키에 오스카 상 선사

두 차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할리우드 배우 숀 펜이 자신이 받은 오스카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선사했다.

최근 개전 아래 3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찾은 펜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나 우크라이나 승리에 대한 믿음의 징표라며 자신의 소유 오스카 트로피 1개를 건넸다.

펜은 “이것은 단지 상징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영화 감독과 제작자이기 한 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러시아를 비판하는 전쟁 다큐멘터



▲ 할리우드 배우 숀 펜(왼쪽)이 자신이 받은 오스카상 트로피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선사했다.

사진=elmundo.es

3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찾아 승리의 대한 믿음의 상징으로 오스카 트로피를 갖고 왔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보관될 것”이라고 였다.

리를 현지에서 찍다가 피란민들과 함께 폴란드로 피신한 바 있다. 러시아는 그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펜은 이후 또 다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부차와 이르핀 등 러시아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학살을 벌인 현장을 찾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로피를 넘겨 받고 답례로 3급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또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꾸준한 지지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스타

그램에 “숀 펜이 전면전 기간

‘컨트리 여왕’ 돌리 파튼 등 로큰롤 전당 입성



▲ 로큰롤 명예의 전당 행사에서 공연하는 돌리 파튼.
사진=dematin.ch

미국 컨트리 뮤직의 여왕으로 불리는 돌리 파튼(76)과 1990년~2000년대 힙합계를 훔친 백인 래퍼 에미넴(50) 등이 ‘로큰롤 명예의 전당’(Rock and Roll Hall of Fame)에 입성했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 재단은 최근 파튼과 에미넴을 2002년 현액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파튼은 전날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지난 5일 제37회 명예의 전당 입성 행사에서 “나는 이제 록스타”라고 외치며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앞서 파튼은 지난 3월 현액 후보로 지명됐을 때 “내가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사양했지만, 이후 재단의 설득 끝에 명예의 전당 입성을 수락했다.

에미넴은 행사에서 “힙합 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중퇴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명예의 전당 입성의 영광을 동료 래퍼들에게 돌렸다.

이와 함께 그래미에서 최우수 여성 록 보컬상을 4회 연속 받은 팻 베네타. 그의 음악적 동반자이자 남편인 기타리스트 닐 지털도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팝밴드 듀란 듀란, 1980년대 팝스타 라이언 리치, 영국 신스팝을 이끈 혼성 듀오 유리스미스, 1970년대 인기 싱어송라이터 칼리 사이먼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현액됐다.

지미 키멀, 내년 오스카 진행자 낙점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멀(55)이 다음 번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자로 발탁됐다.

7일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내년 3월 12일 LA 돌비 극장에서 열리는 제95회 시상식에서 키멀이 단독 진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진행자인 키멀이 오스카상 사회를 맡은 것은 2017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2017년 시상식에서 작품상 수상작이 잘못 호명되는 소동이 일었을 당시 상황을 매끄럽게 수습해 주목받은 바 있다.

키멀은 진행자 선정을 수락하며 “오스카 시상식에 3번



▲ 다음 번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자로 발탁된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멀. 사진=vanityfair.com

이나 초청받는 것은 영광 아니면 함정일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빌 크레이머 AMPAS 최고경영자(CEO)는 “키멀이 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다.”며 “그는 우리가 훌륭한 예술가와 영화를 만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음 시상식은 월 스미스가 지난 3월 제94회 시상식에서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지 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시 스미스는 행사에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탈모증을 앓는

자신의 아내를 두고 농담한 것에 격분, 무대에 올라 록의 짧을 때려 거센 비판을 불어왔다.

이와 관련, 최근 키멀은 “내년 오스카에서 해당 폭행 사건을 농담으로라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꼭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계약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